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 위한건의안

의안 번호	323
----------	-----

제안년월일 : 1997. 11. 8.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유광용의원외 5인

1. 주문

파주시 운정역 차량기지 건설계획 철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철도청에서 파주시 교하면 운정역 부근에 건설하려는 13만평 규모의 차량기지 건설 예정지는 양질의 옥답이 잘 정리된 평야지대로써 1천여농가의 생업에 큰 타격을 줄것인바
- 파주시 운정역 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철회를 위한 건의문을 관계부서에 송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제출처 :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철도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건의문(안)

○○○ 귀하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님께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파주는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종전이후 부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개발행위규제와 국토이용 관리법상 개발 제한지역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도권내 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은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인적·물적 교류의 요충지가 될 것이며, 교통여건을 살펴보더라도 국도1호선인 통일로와 김포공항·인천신공항을 연결하는 자유로를 비롯하여 경의선철도, 임진강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수상교통로등 국내최고의 교통여건을 갖춘곳 이며, 임진강 북방의 미개발된 광활한 토지는 남북 통일시 유입될 인구와 물류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터전으로서 어느지역보다 장래성이 밝은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국가차원의 이러한 관심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3월 1일 파주시로 승격되었으며 개발제한지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등 균형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국책사업들의 입지가 잇따라 우리시로 결정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전원도시를 꿈꾸던 18만시민들을 당혹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송전탑건설, 도시기능을 분산시키는 미니신도시 건설계획을 비롯하여 이제는 비옥한 토지를 잠식하는 철도청의 차량기지까지 건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건설사업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결같이 외면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지어진 사업들로서 줄지에 누대를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된 사업예정지구내 주민들은 물론이고, 언제 또 어느곳에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들어설지 몰라 모든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님!

금빈 철도청에서 파주시 교하면 운정역 부근에 건설하려는 13만평 규모의 차량기지 예정지는 양질의 옥답이 잘 정리된 평야지대로서 1천여 농가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국가산업의 중요성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수도권외 기능분산을 위한 기간시설 후보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18만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계속되는 중앙정부의 기습적인 대규모 건설계획에 대한 수용을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특히 양질의 농토를 시설부지로 하는 운정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전면 제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갖가지 법적·제도적 규제속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감내해온 파주시민들에게도 이제는 개발수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님의 사려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1997년 월 일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